

ACROFAN The Contents Agent Group

Consumer | Commerce | Life | Live

Home > Live > Report

[취재] 2011 하반기 넷이벤츠 토론 I : 애널리시스 메이슨 [종목] 컴퓨터 [분야] IT일반 [작성자] 류재용 [작성일] 2011.11.16. 23:43

2011년 11월 16일과 17일 양일 간의 일정으로, 태국 푸켓 소재 인디고 펄 리조트(Indigo Pearl Resort, Phuket, Thailand)에서 '2011 넷이벤츠 아시아 태평양 기자간담회(2011 NetEvents APAC Press Summit, 이하 넷이벤츠)'가 개최되었다. 지난 4월에 열린 상반기 행사에 이어 열린, 11월 정례 하반기 행사다.

넷이벤츠는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기업의 C 레벨 임원들과 관련 시장조사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업계 동향 및 각 기업의 전략 등을 소개하는 정기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IT 보안, 무선 기술, 영상 회의,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통신망, 통신 인프라 등 업계 이슈에 관한 기업 및 시장 조사기관의 발표와 패널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16일 넷이벤츠 세 번째 세션은 애널리시스메이슨 아태지역 브로드밴드 담당 폴 서너(Paul Sumner) 시니어 매니저가 'e-거버먼트와 클라우드 - 새로운 클라우드 기술도입을 위한 전략 및 베스트 프랙티스(원제 : e-Government and the Cloud - Strategies and Best Practices for the Adoption of New Cloud Technologies)'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취재] 2011 하반기 넷이벤츠 토론 II : 애널리시스 메이슨

[종목] 컴퓨터 [분야] IT일반 [작성자] 류재용 [작성일] 2011.11.16. 23:43

2011년 11월 16일과 17일 양일 간의 일정으로, 태국 푸켓 소재 인디고 펄 리조트(Indigo Pearl Resort, Phuket, Thailand)에서 '2011 넷이벤츠 아시아태평양 기자간담회(2011 NetEvents APAC Press Summit, 이하 넷이벤츠)'가 개최되었다. 지난 4월에 열린 상반기 행사에 이어 열린, 11월 정례 하반기 행사다.

넷이벤츠는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기업의 C 레벨 임원들과 관련 시장조사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업계 동향 및 각 기업의 전략 등을 소개하는 정기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IT 보안, 무선 기술, 영상 회의,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통신망, 통신 인프라 등 업계 이슈에 관한 기업 및 시장 조사기관의 발표와 패널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16일 넷이벤츠 세 번째 세션은 애널리시스메이슨 아태지역 브로드밴드 담당 폴 서너(Paul Sumner) 시니어 매니저가 'e거버먼트와 클라우드 - 새로운 클라우드 기술도입을 위한 전략 및 베스트 프랙티스(원제 : e-Government and the Cloud - Strategies and Best Practices for the Adoption of New Cloud Technologies)'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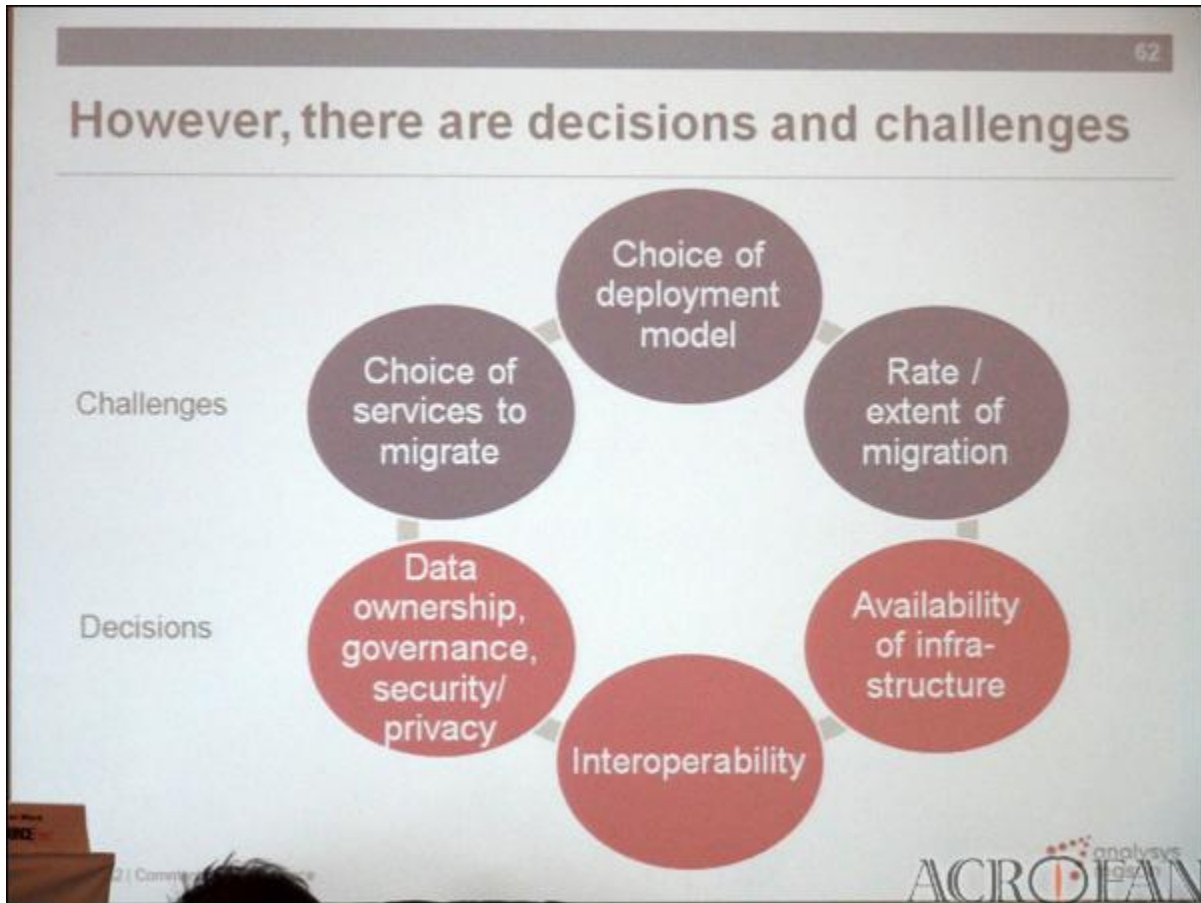
▲ 애널리시스메이슨 아태지역 브로드밴드 담당 폴 서너(Paul Sumner) 시니어 매니저

폴 서너 시니어 매니저는 정부차원에서 클라우드를 보는 이유는 크게 비용절감 목적, 공공 서비스 개발, 더 많은 통찰력을 시민들에 대해 갖는 것 등 세 가지라고 정리했다. 여기에서 의사결정 요소와 도전과제가 도출된다.

정부는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앞두고, 어떤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할 지, 어떤 모델 디플로이할 지, 어느 정도로 마이그레이션할 지, 마이그레이션 시기 조절할 지 등을

선택해야 된다. 도전과제는 데이터 오너십, 보안 등이 주요 이슈다. 상호운용성,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할 지도 파악해야 된다.

이머징 마켓으로 구분되는 국가 정부들은 인프라 가용성 측면 이슈도 있다. 정보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옮겨갈 때에는 국가적인 차원, 지역적인 차원의 문제들도 나온다. 또 무선 인프라에 집중한다면 이 분야와 관련된 도전과제가 추가로 나온다.



▲ 사실 도전과제와 결정은 모두 다 순환고리를 이루는 필연을 지닌 이슈들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IaaS(Infrastructure), PaaS(Platform), SaaS(Software) 등 주로 세 가지 형태를 띈다. 여기에서 파생형으로 CaaS(Communication), DaaS(Data), NaaS(Network) 등이 나온다. 여기에 유형별로도 경향이 나타난다.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내향형), 퍼블릭 클라우드(개방형), 커뮤니티 클라우드(참여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융합형) 등이 손꼽힌다.

올해 초 미국 정부는 클라우드로 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클라우드 우선적인 접근법을 정부에서 채택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점점 더 클라우드로 배치되는 추세다. 이러면서 다양한 사례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 정부부처들이 클라우드를 채택하는 것을 케이스 스터디로 만들어 제공해, 다른 부처에서 전환 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서비스 레벨을 시민들에게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주로 다뤄지며, 기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지 결정하게 돕는 내용도 포함된다.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을 상호운영성 측면 등에서 체크하는 것도 있으며, 어떤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지도 살펴본다. 이런 부분들을 살핀 다음에 프로비저닝, 매니징 하는 것을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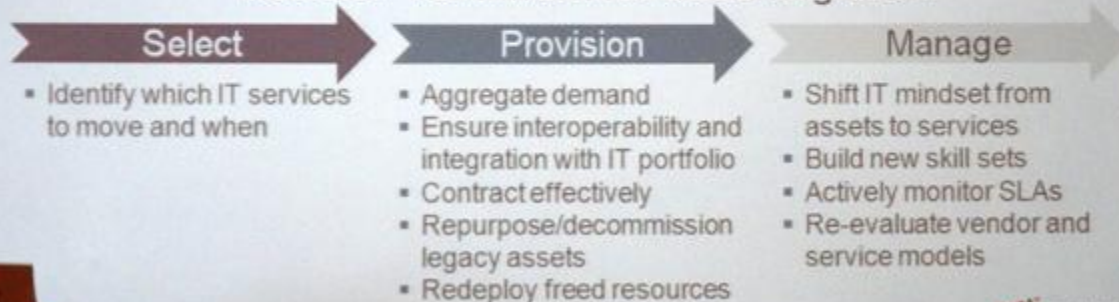
한편, 미국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정부 차원 클라우드 대응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는 국가들로는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유럽연합 등이 있다. 이 외의 국가들도 여건에 맞춘 프로젝트들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Governments are migrating to the cloud



- Federal Cloud Computing Strategy (February 2011)
 - "Cloud First" approach
 - cloud migration framework/case studies from Federal agencies
- apps.gov: a government-wide procurement vehicles and storefront for SaaS/IaaS government services

Decision framework for cloud migration



2 | Commercial in confidence

Source: Vivek Kundra's Federal Cloud Computing Strategy

ACROTIAN ANALY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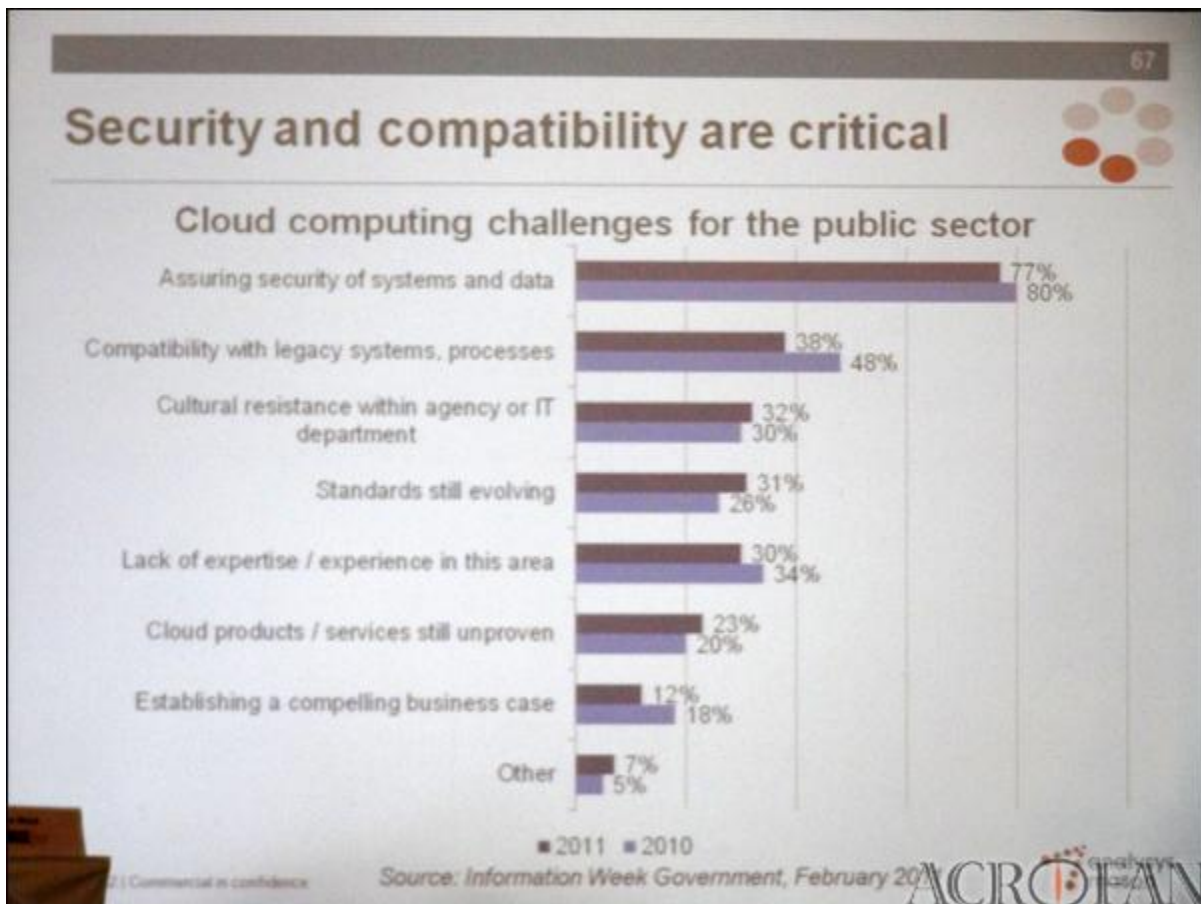
▲ 미국은 IT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정부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정부에서 보는 클라우드 도전과제로는 시스템과 데이터 보안이 가장 우려되고 있다. 많은 수의 데이터 컨트롤을 하면서 보안도 강구하는 것이 문제다. 또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과 감원 등 제반 여건 변화에 따른 문화적인 저항이 IT 부서에서 발생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다. 여기에 고용과 전문지식 등 휴머니티한 부분과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클라우드로 구축하는 기술 문제가 수반된다.

폴 서너 시니어 매니저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단계적인 접근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지목했다. 이러면 보안문제가 적어지고, 벤더들과의 파트너십을 갖춰야 되는 부분도 수용되기 좋다고 설명했다. 또 법규 상 데이터 저장지역 지정에서 허점들이 잘 커버하도록 하는 것과 보다 성숙된 시장과 금융시장 등에서 당면과제가 잘 다뤄지도록 관리하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전제들이 충족된 다음에,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클라우드로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단계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전략을 수행하고, 벤더들과 협력해 기존 시스템에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고, 다른 곳에서 무엇을 성공적으로 했는지를 학습하는 것이 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프로젝트 수행에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

한편, 현재 이머징 시장에서는 정부부처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브로드밴드 인프라와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한데, 새로운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잘 써서 이용사례를 개발하는 것이 좋은 방법론일 수 있다. 또 벤더들은 레이턴시, 프리퀀시 등을 현안을 잘 다뤄서 모범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도와야 된다.



▲ 클라우드 컴퓨팅을 비롯해, 모든 현안에서 최우선 순위는 '보안'이다. 정부 입장이라면 더하다.

Q1. 정부와 민간 부문 CIO들에게서 차이점이 존재하는가?

정부들은 전통적으로 새로운 기술 도입을 꺼려한다. 대신 많은 이니셔티브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개된다. 그래서 정부 CIO들은 클라우드에 신경 쓸 수 밖에 없어졌다. 작은 회사들은 기꺼이 클라우드로 가려고 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좀 꺼려한다. 왜냐하면 더 복잡성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가는 게 더 쉬워서 그리 한다. 정부는 대기업보다 더 꺼려하지만, 편안하게 느끼는 것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야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Q2. 개인정보 등으로 인해 법적인 규제들이 국가마다 다르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 호스팅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현지화, 글로벌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컨설턴트 답변대로 답하자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첫 단계는 현지화에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시민 데이터는 국경을 넘으면 안되어서 그렇다. 그래서 인프라가 중요하다. 데이터센터 여건이 안되면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 서비스는 로컬에서 호스팅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밀데이터에 관한 데이터 액세스가 국경을 넘으면 어떻게 하느냐에서, 로컬에서 방법이 결정될 것이다.

Q3. 정부들이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많은 정부들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해 초기단계 활동을 하다가, 전략 수립을 하는 수준에 직면했다.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현안이 진행되기도 한다. 투자를 보면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가 서비스 역량을 갖추는데 투자가 이루어진다. 많은 정부들은 클라우드로 갈 때 비용절감 효과에 신경 쓴다. 미국을 보면 자료가 있다. 20~25% 정부예산이 클라우드로 간다는 예상이 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비용절감을 누린다고 생각한다.

Q4.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탁월하다.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해 정부 클라우드 구축과 관련이 있을까? 클라우드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민들이 신경을 쓸까?

클라우드 서비스 초기단계라 확답이 힘들다. 그러나 고속 유선 인프라를 갖고 있는 시장은 좀 더 빠른 적극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클라우드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태국도 일부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하려는 곳이다. 많은 전자정부 시스템을 가져가는 쪽이다. 반면 인프라가 없는 시장은 이 인프라 문제를 먼저 해결하던지 같이 추진하던지 선택해야 된다.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이 신경 쓰느냐를 물었는데, 정부가 비용절감하고 퍼블릭 서비스 제공비용을 줄인다면 시민들은 신경 쓸 것이다.